바이오 기업 유치로 신성장동력 가동

전주시-전주지역 바이오 기업 업무협약 체결…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매진키로

전주시가 바이오산업을 강한 경제 전주의 신성장동력으로 함께 키워나가기로 했다.

시는 27일 전주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라파라드㈜ 등 6개 첨단바이오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시-전주지역 바이오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난달 전주첨단산업단지 내 전주창업혁신허브 성장동 개소에 맞춰 본사를 이전한 라파라드㈜와 ㈜바이엘티, 생산시설을 구축한 ㈜시브이바이오와 ㈜오에스와이메드, 도내 이전기업인 ㈜메디앤리서치와 ㈜씨비에이치 등이다.

성장동에 입주한 이들 6개 기업은 주력사업 확장 및 신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는 2027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100여 개를 창출할 예정으로, 시는 생산시설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고부가가치 첨단의료기기 생산 ․ 판매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주요 협약내용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 △바이오 분야에 대한 동향,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 교환 △기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각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협력 사항 등이다.

전주시는 27일 전주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라파라드㈜ 등 6개 첨단바이오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시-전주지역 바이오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바이오 기업들이 그동안 다양한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전주시와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을 이뤄내고, 지역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립암센터 창업기업으로 서울에서 전주로 본사를 이전한 라파라드㈜는 특정 종양 부위만 방사선을 쪼이는 근접 치료를 개발해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사선 의료기기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대수명 증가 및 고령화 추세로 인해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는 카테터와 스탠트 분의야 선도기업인 ㈜오에스와이메드와 ㈜시브이바이오는 각각 경기도 용인과 성남에 본사를 두었으며, 전국 유일 중재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 전주에 생산시설을 확장 구축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 중 군산에서 전주로 본사를 이전한 ㈜바이엘티는 차세대 RNA 치료제 및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향후 5년 내 국내 첫 항바이러스제 신약의 글로벌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C형 간염 바이러스 및 간세포암 동시 치료제의 비임상시험도 앞두고 있다.

끝으로 화장품 및 미용의료기기 기업인 ㈜메디앤리서치와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업인 ㈜씨비에이치도 성장동으로 입주하게 돼 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민선8기 이후 지난 2년간의 노력을 통해 본사와 생산시설을 전주시로 이전한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기업과의 만남이 일회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바이오 기업들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27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20회 전주시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전주시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자원봉사 유공자 · 단체 발굴 · 표창

전주를 나눔과 온정이 넘쳐나는 천사도시로 만들어온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욱 활발한 봉사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27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20회 전주시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원봉사자 대회는 UN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기념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 유공자·단체를 발굴하고 표창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원봉사 현장의 최일선에서 자원봉사로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이끌어온 자원봉사 수요처와 단체, 봉사자에 각각 전주시장 표창과 전주시의회 의장 표창, 국회의원 표창,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표창,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표창,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날 수상자는 전주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힘써온 전주시민과 '배워서 남주자'를 실천해온 재능봉사자 127명, 자원봉사 수요처 및 자원봉사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온 12개 기관·단체이다.

특히 올해 시상식에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탄소중립실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타의 모범을 보인 기관 1곳과 개인 2명이 선정돼 상을 받기도 했다.

최이천 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이웃사랑 실천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도 봉사에 대한 열정을 쏟아 천사의 도시 전주를 만들어 주신 자원봉사자 모두가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면서 "자원봉사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분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 금암1동 지사협,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주민센터(동장 정내섭)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향숙)는 27일, 올겨울 한파를 대비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저소득층 190세대에 전기요, 극세사 이불, 수면 바지 등 난방용품과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지원 물품은 금암1동의 착한가게, 착한가정, 1인1계좌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후원금으로 마련됐으며, 금암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들이 홀로 어르신, 장애인 등 가정에 방문해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하며 올겨울 건강하고 무탈하게 보내길 바라는 안부도 전해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네 만들기의 의미를 더했다.

/김옥기 기자

음주폐해예방사업 '빛났다'

전주시보건소,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가 각종 음주 폐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킨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전주시보건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2024년 음주폐해예방 사업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우수사례에 대한 서면평가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전주시보건소는 다각화된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실제로 전주시보건소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금주구역 조례를 개정했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절주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시민의 절주 의식 고취와 절주 참여 유도를 위해 시청 누리집에 건강 플랫폼을 구축해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도 진행해왔다.

특히 보건소는 지역사회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절주서포터즈, 유관기관 등과 꾸준히 협력해왔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직원 모두가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중앙초, 풍남동에 알뜰장터 수익금 기부

전주중앙초등학교 학생회 담당 선생님과 학생들이 풍남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이웃돕기 성금 27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덩더쿵 한옥마을 축제에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알뜰시장을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쓰일 예정이다.

이우진 학생회장은 "직접 운영한 알뜰시장을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